

#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결혼관의 관계연구

이리아\*, 임원선\*\*

아림가족연구소 소장\*,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and marriage outlook

Ri-a Lee\*, Won-Sun Lim\*\*

Director of Arim Family Research Institu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hinh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확인함으로써 대학생의 긍정적인 결혼관 정립에 영향을 미칠 자아분화 향상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시도한 조사연구이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04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고,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연구변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통계분석,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른 연구변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자아분화와 결혼관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자아분화가 긍정적인 결혼관을 정립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이를 위한 대학생의 긍정적인 결혼관 정립을 위해 건강한 가족을 위한 교육을 실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대학생, 자아분화, 결혼관, 관계, 혼인률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policies and programs to improve self-differentiation that will have an impact on establishing a positive view of marriage among college students by examining and confirming the impact of college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on their views on marriage among college students in early adulthood. This is an attempted research study. For this purpose, a self-report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nd analyzed among 204 college students attending a university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The analysis method used SPSS 25.0 program to calculate internal consistency, frequency analysis to identif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o determine the level of the research variable, and differences in research variabl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 To find out, an independent samples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d post hoc test were conducted, and analysis using SPSS Process Macro was conducted to verify the mediation effec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a positive (+) correlation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views on marriage, which suggests that self-differentiat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establishing a positive view on marriage, and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sitive view on marriage among college students. To this end, we aimed to provide basic data to support education for healthy families through national policy.

**Key Words** College students, differentiation of self, view on marriage, relationships, marriage rate

본 논문은 신한대학교 이리아 박사논문을 재구성한 것임.

Received 02 Jan 2024, Revised 11 Jan 2024

Accepted 16 Jan 2024

Corresponding Author: Won-Sun Lim  
(Shinhan University)

Email: lws0120@hanmail.net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우리 사회는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과업으로 여겨왔다. 최근 몇 년간의 혼인 건수를 살펴보면[1], 2012년 327,073건에서 2015년 302,828건, 2018년 257,622건으로 매년 줄어들었고 2020년 혼인 건수는 213,502건으로 2012년에 비해 34.73% 줄었다. 또한 조혼인율도 2012년 6.5건에서 2015년 5.9건, 2018년 5건, 2020년 4.2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혼인 연령의 상승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독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 여러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결혼 적령기라는 개념이 무의미해지고 결혼의 당위성이 사라지는 등 결혼에 대한 인식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대학 시기는 성인 초기에 해당 되는 시기로 청소년 시기와 달리 자율성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의 시기이다[2]. 이 시기는 이성교제 등을 통해 배우자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가족 및 결혼에 대하여 주관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대학생들은 정서적인 독립, 자유로운 이성 교제, 책임 있는 역할 수행, 경제적인 자립의 준비 등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위치나 역할을 재인식하고 통합함으로써 성인으로서의 자질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라 할수 있다[3].

2017년 결혼에 대한 의식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13~24세 청소년 중 51.4%가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7). 또한, 2022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결과에서는 ‘결혼은 해야 한다’가 51.2%,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이 41.4%, ‘하지 말아야 한다’는 4.4%로 나타났다[3]. 즉, 남성들이 결혼을 당연시 여기는 비율이 과반을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선택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 남녀 간의 견해 차이를 볼 수 있다.

‘결혼은 해야 한다’가 51.2%,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이 41.4%, ‘하지 말아야 한다’는 4.4%로 나타났다[4]. 즉, 남성들이 결혼을 당연시 여기는 비율이 과반을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선택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 남녀 간의 견해 차이를 볼 수 있다.

결혼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결혼관에 대한 인식 및 관련 요인[5], 결혼관[6], 가족응집성[7], 가족기능[8], 결혼만족도[9] 등 대부분으로 일반적인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의 결혼 가치인 결혼관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연구가 이루어졌고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학생의 결혼관에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결혼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며, 둘째,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대학생들의 결혼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넷째, 대학생들의 결혼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자아분화

자아분화는 개인 및 가족 구성원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과 정서적 성숙, 자기가 태어난 가족으로부터 개체화된 정도를 의미하며, 자아분화가 개인의 사고와 정서가 분리되는 능력과 함께 정서적 성숙, 원가족으로부터 분리 개별화된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10]. 자아분화(differentiation of self)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분리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타인과 관계에서 융합되지 않고 독립적이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며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11].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자아분화는 개인 내적인 차원에서의 감정과 이성의 분화된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나와 타인을 분리할 수 있는 대인관계 차원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근한 정서적 관계를 맺지만 정서적으로 융합되지 않으며, 자신의 자아를 잘 유지하여 독자적이고, 자아분화가 잘 되지 못한 사람은 자율성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과 융합하려는 경향과 의존하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자아분화가 잘 이

루어진 사람은 감정과 사고를 잘 구별할 수 있고, 지적·정서적 체계의 기능이 적절하게 분리되고, 감정·사고 기능의 분리가 가능하며,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와 판단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김내원(2015)은 자아분화의 수준이 낮을수록 두 체계는 융합되고 동질화된 경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과 소속감을 위해 쉽게 동조하고 신의 일관된 가치나 생활 원리를 상실하게 된다고 하였다[12].

## 2.2 결혼관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욕구의 증가와 시대적 요구, 사회적 배경, 성장한 가정의 배경 등의 가족 가치관은 미혼 남녀의 결혼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13], 영향 요인으로는 첫째, 결혼에 대한 가치와 태도, 둘째, 배우자의 조건으로 애정, 성격, 매력과 같은 주관적인 조건을 중시하는 배우자 선택에 관심이 늘고 있다. 셋째, 결혼 과정과 생활설계로 이는 결혼 시기부터 결혼 후 역할 분담, 동등성, 책임 등을 포함하며, 결혼 시기의 결정은 수입·기회비용과 같은 경제적인 조건, 외모나 가임능력 등의 생물학적 조건, 성비 등의 인구학적 조건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이 배경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14]. 넷째, 결혼에 대한 시각으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요인 등이 여기에 속하며, 결혼이 의무이고, 가족 계승이라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결혼은 개인의 선택사항이며 인생의 여러 목표 중 하나로써, 만혼, 연상·연하 부부, 초혼이나 재혼에 구애 받지 않는 결혼 등 과거에 비정적으로 여겼던 결혼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15]. 본 연구는 결혼관이 개인이 속한 가족과 관련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에 주목하였다. 특히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변형되고 이어져 가는 연속성의 형태를 나타낸다[16]는 점에서 가족주의 가치관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시대적 동향을 파악하여 변화에 따른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들이 미래에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주체이므로, 이들의 결혼관 분석을 통해 향후 직면하게 될 인구문제, 가족문제 등을 예측하여 해결방안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 2.3 자아분화와 결혼관의 관계

김내원(2014)의 연구에서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결혼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대학생들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사랑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자아분화 수준에 상관없이 결혼에 대하여 정서적인 감정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2-1]. 또한 자아분화는 대학생의 이성관계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17].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이성관계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높으며, 자신과 비슷한 분화수준을 가지고 있는 이성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그리고 자아분화와 이성관계의 친밀감이 관련되며 이성관계를 포함한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진다[19], [20]. 이는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개인은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을 가짐으로써 이성관계에 만족하지 못할 수 있음을 예측한다. 이소미·고영건(2009)의 연구에서도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의 결혼적응 수준과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아분화는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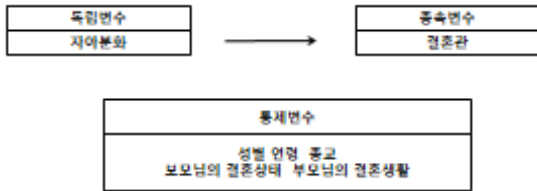
정혜경(2007)의 연구에서는 자아분화 수준이 낮으면 정서적 체계로부터 지적 체계를 분화하기가 어려워져 부부간 갈등을 바람직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에 직면하여 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대처함으로써 결혼관계 유지에 부정적 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22].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23]-[28]의 결과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남궁임(2009)의 연구에서도 남편의 자아분화 수준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나, 부인의 자아분화 수준은 자신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지지만,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0]. 이는 같은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라도 서로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가 다르고, 부부간 갈등의 요인이 존재함에 따라 자아분화 수준은 부부갈등 해결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27-1].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에 독립변수는 자아분화, 종속변수는 결혼관,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년, 전공, 종교, 부모님의 결혼상태, 부모님의 결혼생활, 현재 사귀는 이성의 유무, 현재 사귀는 이성과의 교제기간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자아분화와 결혼관의 관계 연구모형

### 3.2 연구 문제 및 가설

연구문제: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가설: 자아분화가 결혼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3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아분화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정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경기북부 소재 대학의 남녀 대학생 204명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설문조사가 어려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04부가 회수되었고, 결측없이 204부 전부 분석에 사용되었다.

### 3.4 측정변수

#### 3.4.1 종속변수

결혼관이란 가족 가치관의 일부분으로 결혼 및 배우자 선택에 대해 개인이 지향하는 규범 및 가치관을 의미한다(강은숙, 1981). 결혼관을 측정하기 위해 정윤경 등(1997)이 개발한 척도를 이지원(2006)이 수정하여 사용한 23문항을 사용하였다(이소영, 2011). 이 척도는 각 문항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수적인 결혼관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변수의 알파 계수가 0.6 이상으

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1) 결혼관 척도 하위요인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제도 및 정서적 안정	8	1, 2, 3, 5, 6, 8, 9, 11	.90
결혼조건	3	7, 15, 16	.60
전체	11		.83

#### 3.4.2 독립변수

자아분화 수준이란 개인의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Bowen, 1988). 자아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owen(1976)의 가족체계이론을 토대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제작한 제석봉(1989)의 자아분화 척도(DSI-R;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Revised)를 사용하여 점수의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표 2) 자아분화 척도 하위요인 및 신뢰도

변수	문항수	Cronbach's α
자아분화	36	.88

### 3.5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아분화가 결혼관의 관계를 알아보고, 가족기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규명하고자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들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연구변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과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 4. 연구 결과

### 4.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해 2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단위: 명, %)

항목	구분	N	%
성별	남자	58	28.4
	여자	146	71.6
종교	기독교	48	23.5
	천주교	16	7.8
	불교	12	5.9
	없음	128	62.7
부모님의 결혼상태	기혼	150	73.5
	이혼	25	12.3
	사별	14	6.9
	기타(별거, 재혼 등)	15	7.4
부모님의 결혼생활	매우 행복하다	47	23.0
	행복하다	61	29.9
	보통이다	59	28.9
	행복하지 않다	28	13.7
	전혀 행복하지 않다	9	4.4
전체		204	100.0

### 4.2 주요변수의 특성

본 연구에서 측정된 연구변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자아분화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57점으로 나타났다. 결혼관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52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들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산출하였다. 왜도는 절댓값 3 미만, 첨도는 절댓값 10 미만이면 정규분포에 근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Kline, 2005), 모든 변수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요변수의 특성

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자아분화	2.00	4.47	3.57	0.50	-0.52	-0.14

### 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특성

#### 4.3.1 성별에 따른 주요변수의 특성

연구대상의 성별에 따라 연구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른 결혼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관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t=3.883, p<.001$ ). 이는 성별에 따른 결혼가치관의 남녀의 차이가 있다는 김혜진 외(202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표 5) 성별에 따른 주요변수의 특성

변수	구분	N	Mean	SD	t	
자아분화	남자	58	3.62	0.45	0.979	
	여자	146	3.55	0.51		
결혼관	제도 및 정서적 안정	남자	58	3.80	0.56	3.883***
		여자	146	3.41	0.67	
	결혼조건	남자	58	3.82	0.70	4.170***
		여자	146	3.30	0.85	
결혼조건	남자	58	3.75	0.88	0.156	
	여자	146	3.73	0.73		

\*  $p<.05$  \*\*  $p<.01$  \*\*\*  $p<.001$

#### 4.3.2 종교에 따른 주요변수의 특성

종교에 따라 연구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종교에 따른 결혼관( $F=7.154, p<.001$ )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결혼관의 경우 기독교가 종교 없음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독교 집단이 무교보다 결혼관에 긍정적인 것은 기독교 사상에서 결혼, 부부생활, 사랑과 헌신을 접하여 결혼을 당연시하게 된다는 연구(윤나경, 2012)와 연관된다.

#### 4.3.3 부모님의 결혼상태에 따른 주요변수의 특성

부모님의 결혼상태에 따라 연구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했다. 부모님의 결혼상태에 따른 자아분화( $F=7.170, p<.001$ ), 결혼관( $F=4.858, p<.01$ )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기혼이 이혼보다 자아분화, 결혼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 부모님의 결혼상태에 따른 주요변수의 특성

변수	항목	N	M	SD	F
자아분화	기혼a	150	3.65	0.48	7.170***
	이혼b	25	3.17	0.45	
	사별c	14	3.56	0.44	
	기타(별거, 재혼 등)d	15	3.49	0.49	
결혼관	기혼a	150	3.60	0.65	4.858**
	이혼b	25	3.12	0.62	
	사별c	14	3.27	0.64	
	기타(별거, 재혼 등)d	15	3.62	0.58	

\* p<.05 \*\* p<.01 \*\*\* p<.001

#### 4.3.4 부모님의 결혼생활에 따른 주요변수의 특성

부모님의 결혼생활에 따라 연구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부모님의 결혼생활에 따른 자아분화(F=28.357, p<.001), 결혼관(F=6.049, p<.001)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자아분화의 경우 '매우 행복하다'가 '보통이다'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보통이다'가 '행복하지 않다'와 '전혀 행복하지 않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결혼관의 경우, '매우 행복하다'가 '전혀 행복하지 않다'와 '행복하지 않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7) 부모님의 결혼생활에 따른 주요변수의 특성

변수	항목	N	M	SD	F
자아분화	매우 행복하다a	47	3.96	0.30	28.357***
	행복하다b	61	3.68	0.44	
	보통이다c	59	3.48	0.41	
	행복하지 않다d	28	3.05	0.44	
	전혀 행복하지 않다e	9	3.07	0.46	
결혼관	매우 행복하다a	47	3.86	0.61	6.049***
	행복하다b	61	3.46	0.70	
	보통이다c	59	3.52	0.56	
	행복하지 않다d	28	3.29	0.60	
	전혀 행복하지 않다e	9	3.00	0.77	

\* p<.05 \*\* p<.01 \*\*\* p<.001

#### 4.4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혼관은 자아분화(r=.268,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8) 종교에 따른 주요변수의 특성

	자아분화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가족의사소통	결혼관	제도 및 정서적 안정	결혼조건
자아분화	1						
결혼관	.268***	.308***	.316***	.250***	.266***	1	

\* p<.05 \*\* p<.01 \*\*\* p<.001

### 5. 결론 및 제언

#### 5.1 연구결과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자아분화, 결혼관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긍정적인 결혼관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경기북부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204)명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 하였다. 자아분화, 결혼관 두 변인의 상관관계를 가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연구변인의 차이에서 결혼관, 결혼관의 하위요인인 제도 및 정서적 안정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관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도 및 정서적 안정도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성호 외(2020)의 연구에서 조사되었던 남성의 결혼의향이 여성의 결혼의향보다 높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종교에 따른 연구변인의 차이에서 결혼관, 결혼관의 하위요인인 제도 및 정서적 안정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계획 영향요인으로 종교가 있는 여대생이 종교가 없는 여대생에 비해 결혼계획 의사가 있다는 조운정(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부모님의 결혼상태에 따른 연구변인의 차이에서 자아분화, 결혼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 결과, 기혼이 이혼보다 자아분화, 결혼관에

서 더 높게 나타났다.

넷째, 부모님의 결혼생활에 따른 연구변이의 차이에서 부모님의 결혼생활에 따른 자아분화, 결혼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가족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자녀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김경주·김영혜, 2015; 조성희·박소영, 2010; 오종현, 2016; 하상희, 2008)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결혼생활이 행복할수록 결혼에 대한 다양한 기대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결혼생활이 자녀의 결혼관에 세대간 전이를 통하여 전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5.2 함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구조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대학생들의 자아분화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생들이 건전한 결혼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을 위한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자아분화를 향상시켜 긍정적인 결혼관을 형성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아분화의 상관관계를 여부를 확인하였고, 대학생의 결혼관을 자아분화로 접근하여 결혼관에 관련된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실천적 함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대학에서는 학생의 자아분화 향상을 위한 예비부부교실, 결혼예비학교, 신혼기부부교육 등의 예방적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각 대학에서는 여러 학문의 융합적 교육과정(김혜진, 2020)을 통해 남자 대학생들에게는 남성 역할 변화와 육아의 인식변화에 대한 교육을, 여자 대학생들에게는 출산이 여성을 업마가 아닌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각 대학의 상담관련 센터에서는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및 교육을 통하여 대학생들의 자아분화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결혼준비교육과 예비부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긍정적인 결혼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5.3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북부 남녀 대학생들만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연구되었기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지역적 한계점을 갖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였으나, 결혼관에 대한 연구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미혼의 모든 청년들에게 필요한 주제로써, 대학생을 포함한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연구하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생들의 자아분화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는 대학생들의 결혼관에 대한 이해와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이 결과만으로 대학생들의 결혼관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다양한 변인들을 모두 포함한 영향력에 대해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하여 보다 폭넓은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통계청(2020), 2020년 사회조사 결과(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보도자료.
- [2] 김명화(2008), “간호대학생의 자아정체감, 대인관계 및 적응에 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7권 1호, pp. 55-64.
- [3] 권인숙(2003),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성의식 및 결혼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통계청(2022), 「인구동향조사」, 혼인건수, 조혼인율, 이혼건수, 조이혼율.
- [5] 김건영(2009), “대학생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이소영(2011), “남녀 대학생의 자아분화 수준과 부모와의 관계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이지원(2006), “가족기능이 대학생의 결혼관 및 자녀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논문.
- [8] 이선교(2014), “대학생 결혼관 구조모형 개발”,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임준호(2017), “원가족 부모의 부부관계가 기혼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0] 장휘숙(2008), “성인초기의 발달과업과 행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제21권 4호, pp. 109-126.
- [11] 박문재(2010),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 연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2] 박양관(2016), “중년기 여성의 자아분화, 사회적지지와 자아정체감과과의 관계에서성역할갈등의 매개효과”,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3] 김내원(2015),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결혼관의 상관관계성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연구”, 총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4] 오은희·고성희(2018),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원가족건강성, 자아분화 및 결혼관의 관계”, 수산해양교육연구, 제30권 제4호, pp. 1356-1366.
- [15] 이인수(1994), “한국 여성의 결혼전이 시기에 미치는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2권 2호, pp. 252-261.
- [16] 김양희·문영소·박정운(2003),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문화연구원, 생활과학논집 제17권, pp. 53-72.
- [17] 김예희(2010), “여성의 세대별 가족주의 가치관 구조와 결정요인”,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8] 하상희(2012), “남녀 대학생의 자기분화와 정신건강 및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7권 2호, pp. 177-195.
- [19] 임선화(2014), “대학생의 성인애착, 이성관계만족도, 자아분화 간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강은숙·박정희(2005), “자아분화와 사회불안이 남녀 대학생의 커플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제13권 2호, pp. 149-169.
- [21] 최연화(2012), “대학생의 자아분화, 성인애착, 관계중독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제13권 2호, pp. 689-704.
- [22] 이소미·고영건(2009), “자아분화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효과-갈등대처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제28권 3호, pp. 164-658.
- [23] 정혜정(2007),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의 변모과정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4] 김수연(2001), “기혼여성의 자아분화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5] 박수선·김명자(1996),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아분화수준과 결혼만족도”, 생활과학연구지, 제11권 2호, pp. 41-63.
- [26] 박은희(2011), “부부의 자아분화가 갈등대처 방식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7] 조은경·정혜정(2009), “원가족 건강성이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3권 제4호, pp. 105-132.
- [27] 제석봉(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Bowen의 가족치료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8] 한영숙(2007),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6권 2호, pp. 259-272.
- [29] 나남숙·이인수(2017), “자기분화, 결혼만족도, 현신간의 관계: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적용”, 가족과 가족치료, 제25권 1호, pp. 115-136.
- [30] 남궁임(2009), “자기분화 수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배우자의 자기분화 수준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 리 아 (Lee Ri-A)



- 2022년 8월 : 신한대학교 일반대학원 남북협력행정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 2023년 12월~현재 : 아립가족연구소 소장
- 관심분야 : 가족복지, 실천, 상담
- E-Mail : dmstlfdl7607@naver.com

임 원 선 (Lim, Won-Sun)



- 2023년 12월 : 신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주임교수,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21년 12월~현재 : 한국비영리학회 부회장
- 2021년 12월~현재 : 한국사회복지역사학회 수석부회장
- 관심분야 : 사회복지, 실천
- E-Mail : lws0120@hanmail.net